“버스비 무료 지원사업 확대 4월부터 어린이·청소년 무료 대중교통 활성화·경제적 부담 완화”

4월부터는 도내 어린이와 청소년은 시내·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도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에 이어 만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확대한다.

-충남도정신문-

‘It’s a Godsend’: 9-Cent Taxi Rides in Rural South Korea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는 이 아이디어가 매우 성공적이어서 서천군의 100원 택시가 다른 군으로도 확산되고 한국 시골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서천에서는 40개 마을에서 4만명이 100원 택시를 이용했다. 서천군에서는 1억7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선동마을에 거주하는
나정순(85)

“옛날 버스정류장에서 집까지 장바구니를 끌고 다녀야 했던 시절이 어땠는지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 “이제 공공형택시(공공형버스) 집 앞까지 태워다준다”

-매일경제-

03 | 정책과제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관리모델 도입으로 사업 효율성 도모 및 주민 만족도 상시 모니터링
- 고령자 등 교통약자 버스요금 무료화 확대 (현 75세 이상 고령자를 65세까지 확대)
- 준공영제 기반의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공공형버스·공공형택시) 운영체계 전환으로 공공 교통복지사업의 안정성 확보
- 충남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와 생활서비스(복지·문화 등) 전달체계 연계사업 추진
-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

04 | 기대효과

공공교통 불리지역의 교통복지 양극화 해소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편리성과 만족도의 증가로 공공 교통복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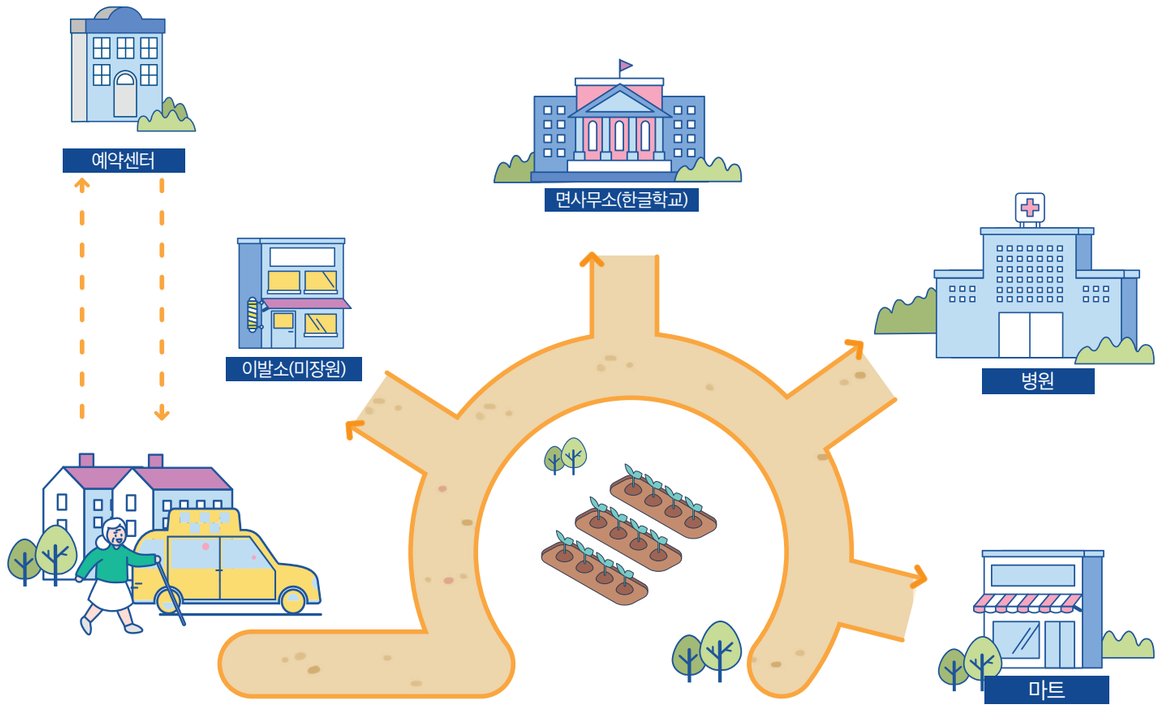
고령친화적 미래사회를 대응하는 공공 교통복지정책 선도

디자인&인쇄 디자인화랑(042. 625. 5310)

충남 정책지도 2022-02 통권 29호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과 해결 방안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김원철**
충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 연구원 **김윤식**



배경 및 목적

- 충남도와 시군은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 약자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함[1)]
- 충남 시군에는 버스서비스 사각지역이 얼마나 있고, 도·시·군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버스서비스를 이용하는 관점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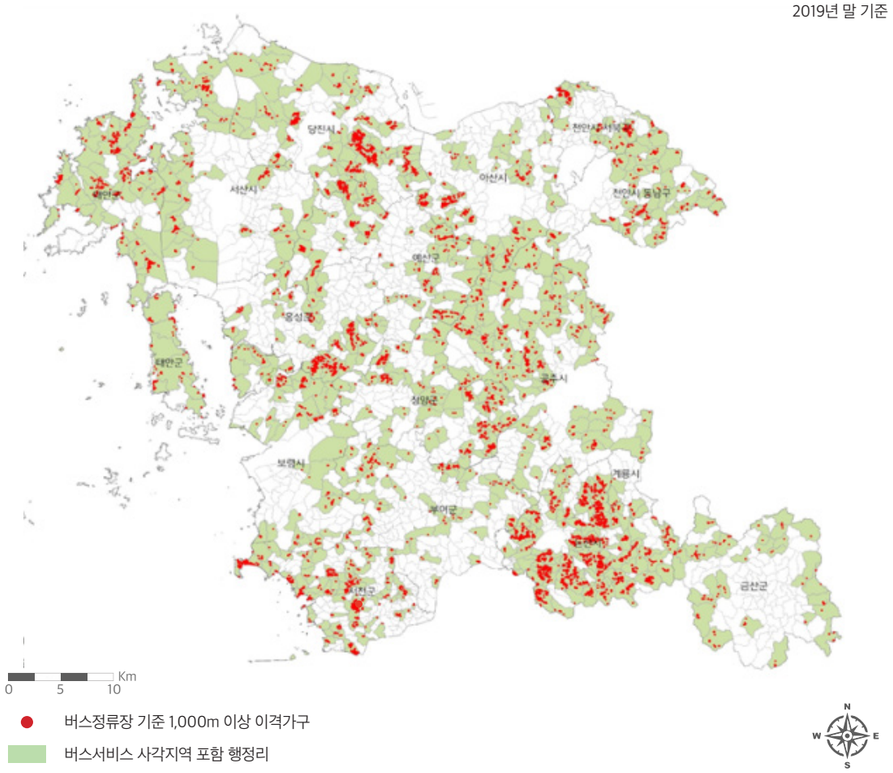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01

충청남도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

버스서비스 사각지역이란?

2019년 말 기준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현황

가구수	총 인구	65세 이상 고령자
6.2%	**3.0%**	**6.5%**
17,166가구	**64,744명**	**26,121명**
275,309	2,162,201	402,3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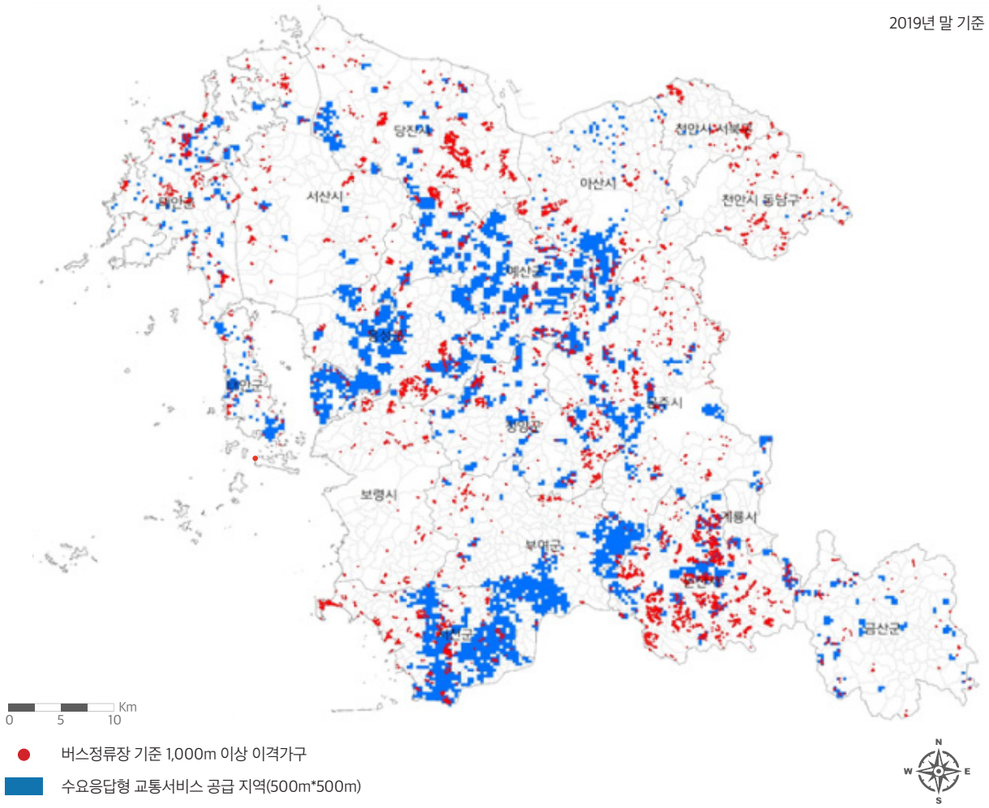
02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

충남 14개 시·군(계룡 미포함)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를 운행하여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충남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도시형·농촌형 교통모델) 도입현황

2019년 말 기준



공공형택시

대 수 **2,600**

마 을 수 **496**

연간누적이용객 **36,280**

공공형버스

대 수 **50**

마 을 수 **142**

연간누적이용객 **30,770**

충남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해소율* 약 25.0% 수준

충남도 전체 면적의 약 6.1%에 해당되는 사각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투자 필요

* 버스서비스 사각지역 대비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공급 지역 비율